



KOITA-IDSA 업무협약 체결

산기협-국제데이터공간협회 업무협약 체결

세계 최대 산업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 협회와 산업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 위한 MOU 체결

산기협은 국내 최초로 세계 최대의 산업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독일의 국제데이터공간협회(International Data Spaces Association, 이하 IDSA)와 2021년 8월 19일(목) 산업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공간(data space)’의 생성과 개발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정보제공 및 기업 대상 교육 ▲ 데이터 공유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활용사례(Use Case) 개발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되었다.

폭스바겐, 구글, IBM 등 22개국 130여개 글로벌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IDSA는 세계 최대의 산업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안전한 거래와 활용체계 구축, 글로벌 표준 마련, 데이터 공용활용 모델 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범유럽 데이터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270여개 회원기관이 활동 중인 ‘가이아-X’, 벤츠, MS 등 3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산업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 ‘카테나-X’ 등 수 많은 연합체에서 진행

하는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들이 IDSA의 표준과 기술로 운영되고 있다.

IDSA는 2018년부터 미국의 산업인터넷컨소시엄(IIC), 일본의 산업밸류체인 이니셔티브(IVI) 등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국제간 산업 데이터 공유를 위한 협력활동을 진행해왔지만 한국에는 관련 협력 파트너가 없어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없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데이터 공유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한국기업 간 협력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산기협 구자균 회장은 “앞으로 산업 데이터의 활용은 기업 디지털 전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럽은 2014년부터 산업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플랫폼 개발을 시작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적, 법적, 윤리적 이슈 등을 논의해오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많이 뒤쳐져있다”고 말하며, “이번 IDSA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산업데이터 활용 분야 연구에 앞서 있는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기관 회원사의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기업간, 산업간, 국가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